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8. 19.(수) 11:00 (지면) 2026. 8. 20.(목) 조간 배포 2026. 8. 19.(수) 06:00

인천항 통합방호, 실전처럼 대비한다

- 8월 20일 을지연습 시 민·관·군경과 합동으로 복합테러 대응 및 피해복구훈련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8월 20일(목) 14시부터 인천항에서 을지연습으로 '인천항 통합방호훈련 및 피해복구훈련'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민·관·군·경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만에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며,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훈련은 사이버테러로 인한 물류체계 마비 대응을 시작으로, ▲국제여객터미널 인질테러 및 폭발물 설치 대응, ▲미사일 공격에 따른 항만 중요시설 피해 복구, ▲민간선박 나포인질 구출, ▲군집드론·무인기 공격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 복구 등 다양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.

이번 훈련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, 육군 제17보병사단 등 22개 유관기관의 민·관·군·경 2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, 헬기, 함정, 드론, 소방차, 대공미사일 등 실제 장비가 투입되어 실전과 같은 상황을 재현한다.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"해양수산 관계 기관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과 AI·첨단과학 기술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"라며, "이번 훈련을 통해 항만의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,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	책임자	과 장	정상욱 (051-773-5190)
		담당자	주무관	김선도 (051-773-5191)

참 고

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개요

□ 훈련 개요

- (훈련일시) 2026. 8. 20.(목), 14:00 ~ 15:30
- (훈련장소) 인천항 연안여객부두(舊 제주행), 인천 신항(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)
- (훈련주관) 해양수산부 장관
- (기관/인원) 인천지방해양수산청, 인천항만공사 등 22개 기관, 약 230명
- (참가장비) 군함, 헬기, 장갑차, 발칸, 천궁II, 교량전차, 재밍건, 드론(50기) 등

민(民)	관(官)	군(軍)
인천항만공사, 한국전력공사, 인천항보안공사, 인천항시설관리센터, 안티드론 및 로봇 업체	해양수산부, 해양경찰청, 인천지방해양수산청, 연수경찰서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, 인천광역시경찰청, 제물포경찰서, 중부소방서, 한국해양수산연수원	육군 제17보병사단,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, 제 9공수특전여단,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, 공군 제3미사일 방어여단, 해병대 2사단,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

□ 훈련 구성

실제훈련 스토리				
26을지연습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 및 긴급복구 실제훈련				
항만시설 사이버테러	다중시설 복합테러	항만시설 피해복구	군집드론 테러 대응	선박 나포/인질구출
주요국면 (5개)	① 사이버 침해(영상) 사고인지, 초동조치, 상황보고, 현장조치	사이버 위기대응 사고조사, 복구계획 수립, 현장 추가조치	시스템 정상화 시스템 복구, 재발방지 대책 마련	
	② 다중시설복합테러 승객 인질 및 폭발물 설치 대응	③ 항만시설피해복구 적 미사일 격추, 도로 및 항만시설 긴급복구	④ 민간 선박 나포 특전사 공중 침투, 선박 인질 구출	⑤ 군집드론공격 대응 군집드론 공격, 적 드론 격추, 시설 및 인명피해 복구